

대외 리스크가 한국 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산업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

| 요약 |

- 대내외 복합위기 상황에 직면하여 대외 리스크와 관련된 전문가 조사를 수행
 - 대외 리스크를 5대 부문 27개 유형들로 선별하고, 한국 경제 및 제조업에 대한 영향을 조사
- 대외 리스크 5대 부문과 한국 경제 영향: 경제 리스크의 위험도를 가장 크게 우려
- 대외 리스크 요인들이 국내 주요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총 11개 업종을 ICT(4개), 기계(3개), 소재·신산업(4개) 등 3대 관련 업종으로 구분하여 조사 결과를 고찰
 - ICT 업종의 최대 리스크는 글로벌 경기 부진과 공급망 불안 등으로 소비심리 약화에 따른 구매력 저하, 완성품 생산 차질 및 투자수요 위축 등에 기인
 - 기계 업종의 최대 리스크로는 환율 불안정성과 지정학적 대립 등이 있으며, 환율 변동에 민감한 기업실적 구조와 수출시장 위축 및 물동량 축소 등이 그 배경
 - 소재·신산업의 최대 리스크로는 유가·원자재 가격과 기후변화 대응이 있으며, 원유·원자재를 직접 수요하는 업종 특성과 친환경 전환 요구 강화 등이 크게 작용
- 대외 리스크 5대 부문별 중심·연관 리스크를 복합적으로 파악할 필요
 - 특정 리스크에만 한정하지 않고 연계, 부정적 파급력 등을 모두 고려한 대응책이 필요
 - 예로, 기술발전의 부작용은 디지털 격차 심화 외에도 사회적 갈등을 유발(반향실 효과*)
 - *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알고리즘이 정보의 편중을 야기하는 현상으로 집단적 사고의 양극화를 더욱 강화
- 대외 리스크와 관련된 정책 대응 실태는 대부분 보통 수준(61~80%)으로 미흡 평가
- 효과적인 리스크 대응을 위해서 다양한 정보 수집 노력과 다각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
 - 특히 국내외적으로 복합적인 위기 상황이 도래하는 경우에 대비한 다각적이고 고도화된 접근 및 대응책을 강구할 필요

■ 대외 리스크가 한국 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 파악 필요성 증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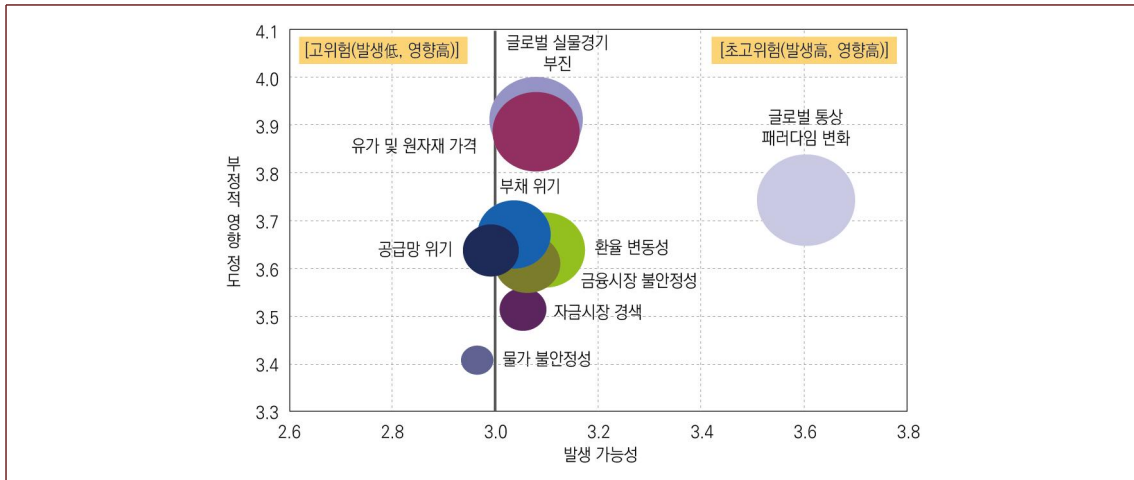
- 한국 경제와 산업은 반도체산업 부진과 미-중 갈등 및 공급망 재편, 러-우 및 이스라엘-하마스 전쟁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 복합위기에 직면
 - 각각의 개별 리스크에 대응하는 중에도 고금리 지속에 따른 소비 부진, 유가 변동성 확대, 보호주의 강화 등 동시다발적 위기에 직면
 -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특성상 다양한 경제·지정학·환경·사회·기술적 요인들이 개별적 또는 복합적으로 한국 경제 및 산업에 리스크로 작용
- 다양한 리스크 간 연관성과 복합적인 성격을 숙지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내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대외 리스크와 관련된 설문조사를 수행하고, 시사점을 도출¹⁾
 - 다양한 유형들의 대외 리스크를 선별하여 향후 발생 가능성과 파급력, 중심·연관 리스크 식별 및 리스크별 대응 실태 등과 관련하여 전문가 조사를 수행
 - 세계경제포럼(WEF) 등 선행자료들을 참고하여, 대외 리스크를 경제·지정학·환경·사회·기술 등 5대 부문·27개 요인으로 유형화하고, 단기(3년 내) 관점에서 조사

■ 대외 리스크 5대 부문과 한국 경제 영향: 경제 리스크 위험도를 가장 크게 인식

- 대외 리스크 5대 부문에 대하여 ① 미래(3년 내) 발생 가능성과 ② 한국 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력으로 상대적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, 경제 리스크가 가장 크고, 이어서 사회 리스크, 환경 리스크, 기술 리스크, 지정학 리스크 등의 순서
 - 경제 리스크 요인들의 위험도가 크게 나타난 것은 그 개념이나 성격상 한국 경제와 직·간접적으로 연관된 요인들이기 때문이고, 사회 리스크와 환경 리스크는 경제 리스크보다 덜하지만, 일정 부문의 부정적 영향력을 우려
 - 기술 리스크나 지정학 리스크에 따른 위험도는 미래 실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상되었고, 한국 경제에 대한 부정적 파급 영향 역시 경제 리스크 등 여타 리스크 요인들에 비해서 덜한 정도일 것으로 조사
- 부문별 조사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, 경제 리스크에서 글로벌 통상 패러다임 변화가 미래 발생 가능성과 부정적 영향력이 가장 크고, 글로벌 실물경기 부진과 유가 및 원자재 가격 변동 등도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
 - 글로벌 통상 패러다임 변화는 글로벌 통상환경이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점을 반영하고, 글로벌 경기 부진과 유가·원자재 가격 등은 단기 상황 변화에 대한 관심을 시사

1) 본 자료는 「한국 산업의 대외리스크 요인 탐색 및 영향 분석 연구」(변창욱 외, 2023년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)의 제2장(대의 리스크의 탐색과 식별)의 내용에 기반하여 요약 작성한 것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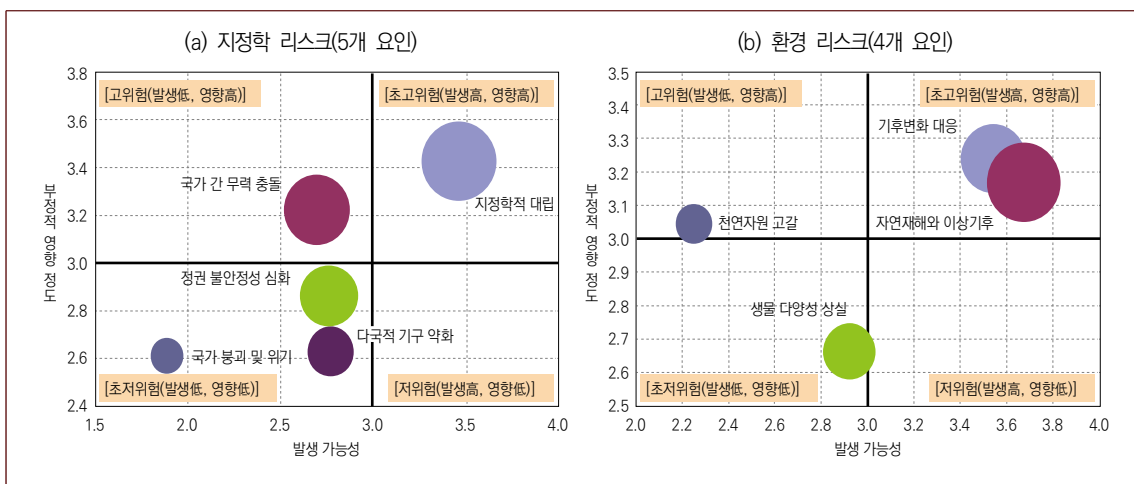
〈그림 1〉 경제 리스크(9개 요인)에 대한 전문가 조사 결과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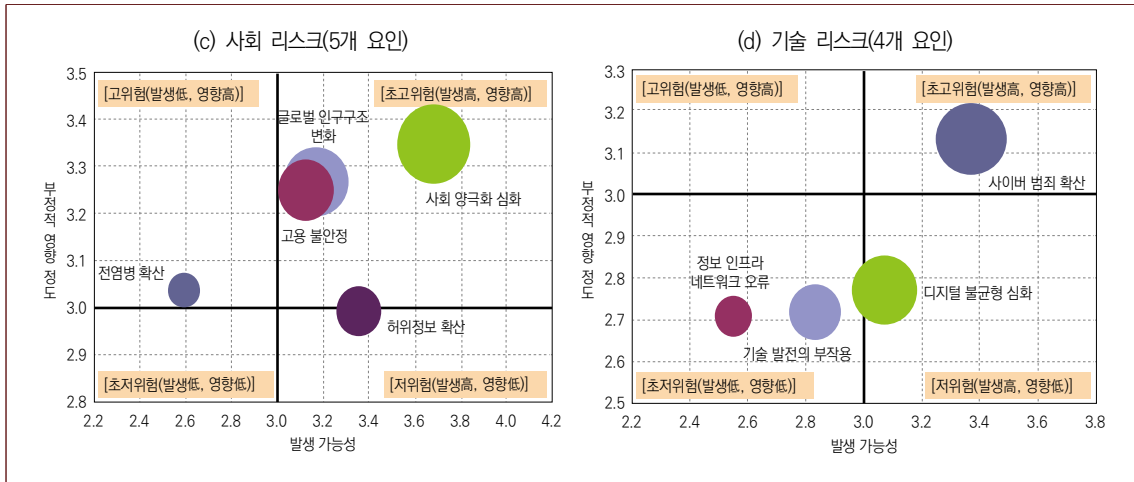
주: 1) 종축과 횡축은 5점 척도 기준, 5에 가까울수록 부정적 영향력과 향후 발생 가능성이 큼을 의미.
 2) 원의 크기는 발생 가능성과 부정적 영향 정도의 평균값 순위(원의 크기가 클수록 평균값도 큼을 의미).

- 지정학 리스크로는 지정학적 대립이, 환경 리스크로는 자연재해가, 사회 리스크로는 사회 양극화, 기술 리스크로는 사이버 범죄 등의 실현 가능성과 부정적 영향력을 크게 평가
 - 지정학적 대립의 경우에 미국-중국 간의 대립 격화 등을, 자연재해와 이상기후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국 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력이 상당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
 - 이 외에 사회 양극화나 인구구조 변화, 사이버 범죄 확산 등도 미래 실현 가능성이 있으나, 한국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력은 경제 리스크 요인들보다도 상대적으로 미미한 저위험 요인들로 평가

〈그림 2〉 지정학 및 환경, 사회, 기술 리스크에 대한 전문가 조사 결과



(계속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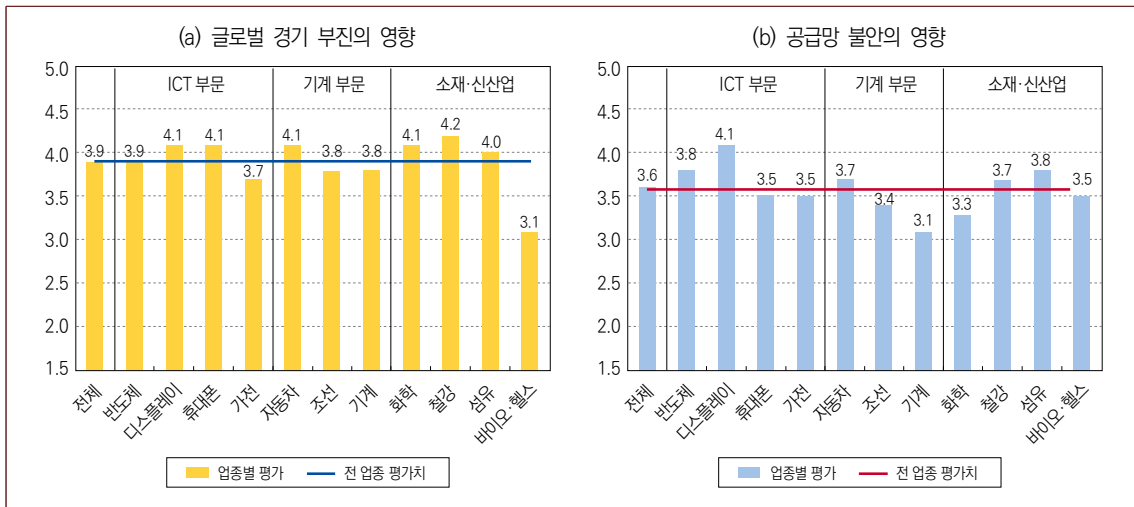
주: 1) 종축과 횡축은 5점 척도 기준, 5에 가까울수록 부정적 영향력과 향후 발생 가능성이 큼을 의미.
 2) 원의 크기는 발생 가능성과 부정적 영향 정도의 평균값 순위(원의 크기가 클수록 평균값도 큼을 의미).

- 대외 리스크 요인들이 국내 주요 제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관련하여 주요 3대 업종, 즉 ICT와 기계, 소재·신산업 관련 업종으로 구분하여 조사 결과를 검토

■ ICT 업종의 최대 리스크 요인: 글로벌 경기 부진과 공급망 불안

- 대외 리스크 요인들이 국내 ICT 업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관련해서 글로벌 경기 부진과 공급망 차질, 부채 위기 및 자금시장 경색 등의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
 - 글로벌 경기 부진은 특히 ICT 및 소재 업종에서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되는데, 그 배경으로서 소비심리 약화에 따른 구매력 저하, 전망기기 수요 부진 등이 언급

〈그림 3〉 국내 주요 제조업에 대한 영향력 조사 결과 (1): 글로벌 경기 부진과 공급망 불안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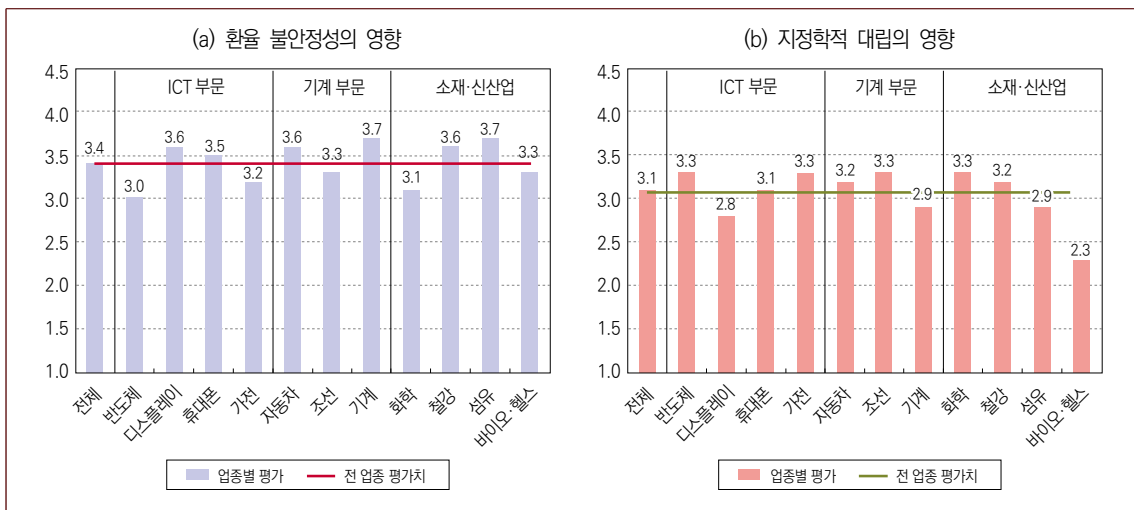
주: 5점 척도 기준, 5에 가까울수록 부정적 영향력이 큼, 작을수록 부정적 영향력이 작음을 의미.

- 공급망 불안도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에서 부정적 타격을 크게 우려하는데, 이는 IT기기 등 완성품 생산 차질로 인한 수요 둔화와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수요 위축 등에 기인

■ 기계 업종의 최대 리스크 요인: 환율 불안정성과 지정학적 대립

- 대외 리스크 요인들로 인해 기계 관련 업종들이 받을 부정적 영향으로 특히 환율 불안정성이나 지정학적 대립 등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 점이 특징적
 - 환율 변동성의 부정적 영향력이 자동차와 기계 업종에서 크게 나타난 것은 환율 변동에 상대적으로 민감한 제품가격 경쟁력과 기업실적 구조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
 - 지정학적 대립은 자동차와 조선, 국가 간 무력 충돌은 조선에서 부정적 영향을 크게 우려했는데, 이는 수출시장 위축과 물동량 축소, 불확실성에 따른 수요 위축 등에 기인

〈그림 4〉 국내 주요 제조업에 대한 영향력 조사 결과 (2): 환율 불안정성과 지정학적 대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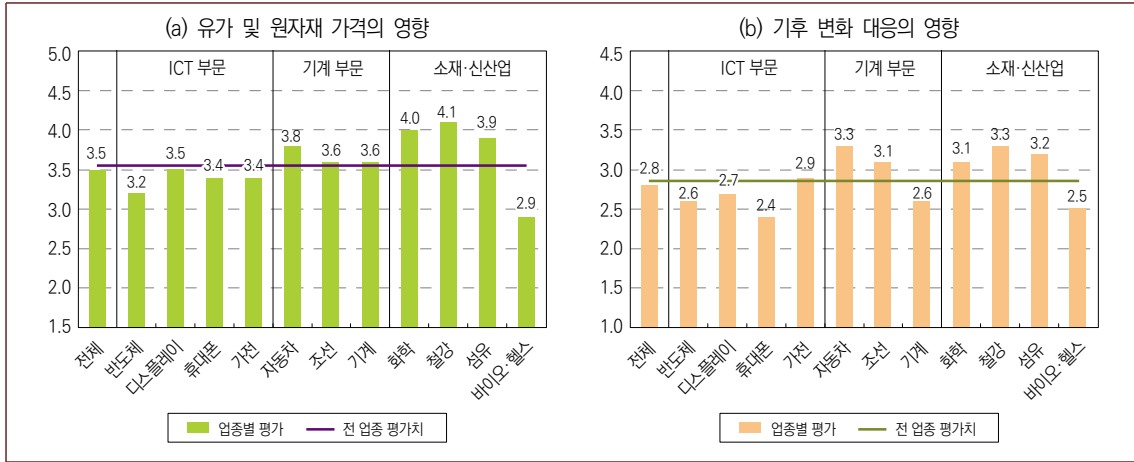


주: 5점 척도 기준, 5에 가까울수록 부정적 영향력이 큼, 작을수록 부정적 영향력이 작음을 의미.

■ 소재·신산업의 최대 리스크 요인: 유가·원자재 가격과 기후변화 대응

- 대외 리스크 요인 가운데 소재·신산업에 가장 크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유가 및 원자재 가격과 기후변화 대응 등이 있는 것으로 조사
 - 유가·원자재 가격 변동은 소재 업종이 원유나 원자재 등을 직접 수요하는 업종 특성에 기인하고, 특히 원재료 비용과 연관되어 수익성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할 것으로 우려
 - 또한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환경 리스크가 소재 업종에 크게 미치는 것은 온실가스 감축 규제로 인한 친환경 전환 요구 강화, 생산설비 피해 가능성 등이 그 배경으로 작용

〈그림 5〉 국내 주요 제조업에 대한 영향력 조사 결과 (3): 유가·원자재 가격, 기후 변화 대응



주: 5점 척도 기준, 5에 가까울수록 부정적 영향력이 큼, 작을수록 부정적 영향력이 작음을 의미.

▣ 대외 리스크 5대 부문의 중심·연관 리스크와 연계구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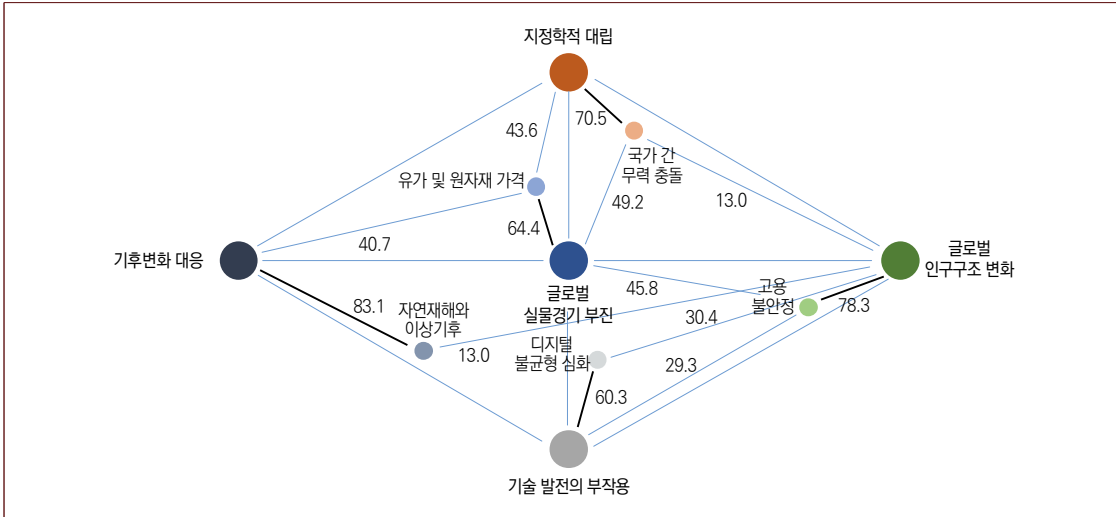
- 대외 리스크 대응을 위해 구조적으로 영향력이 가장 큰 리스크(중심 리스크) 및 그 리스크와의 연계성이 높은 리스크(연관 리스크)를 복합적으로 파악할 필요²⁾
 - 부문별 중심 리스크는 글로벌 실물경기 부진(경제), 지정학적 대립(지정학), 기후변화 대응(환경), 글로벌 인구구조 변화(사회), 기술발전의 부작용(기술)으로 조사
 - 부문별 중심 리스크에 대응하는 가장 큰 연관 리스크는 유가·원자재 가격(경), 국가 간 무력 충돌(지), 자연재해와 이상기후(환), 고용 불안정(사), 디지털 불균형 심화(기) 등
 - 연관 리스크들은 각 중심 리스크들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브리지 역할을 하고, 리스크 간 연계성을 통한 상호 작용으로 동시다발적 위기(polycrisis) 발생 가능
 - 가령, 경제 부문의 1순위 연관 리스크인 '유가 및 원자재 가격'은 경제 부문만이 아니라 지정학 및 환경 부문의 중심 리스크와도 높은 연관관계를 형성
 - 이는 발현하는 특정 리스크에만 한정하지 않고, 리스크 간 연계성이나 부정적 파급 정도, 우선순위 등 다양한 측면들을 모두 고려하여 대응해야 함을 시사

▣ 경제 부문의 중심 리스크(글로벌 실물경기 부진)와 연관 구조

- 경제 부문의 중심 리스크는 '글로벌 실물경기 부진'으로 향후 발생 가능성이나 한국 경제에
 - 2) 중심 리스크는 각 부문에서 직관적인 판단 시 구조적으로나 타 리스크에의 영향력 모두 가장 큰 리스크이며(각 부문별로 1개씩 총 5개), 연관 리스크는 중심 리스크와 가장 밀접하면서도 높은 연계성을 가지는 리스크임(전체 27개 리스크 중 각 중심 리스크와 나머지 26개 리스크와의 연관도를 응답 비중으로 서열화). 예로, 경제 리스크 9개 중 '글로벌 실물경기 부진'이 경제 부문 내뿐만 아니라 타 리스크에도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다면 경제 부문의 중심 리스크가 되며, 중심 리스크를 제외한 나머지 26개 리스크가 연관 리스크이고, 이때 26개 연관 리스크는 중심 리스크와의 연관관계(응답비중)에 따라 서열화됨. 이를 통해 각 부문별 리스크 관리의 우선순위 및 범위를 가늠해볼 수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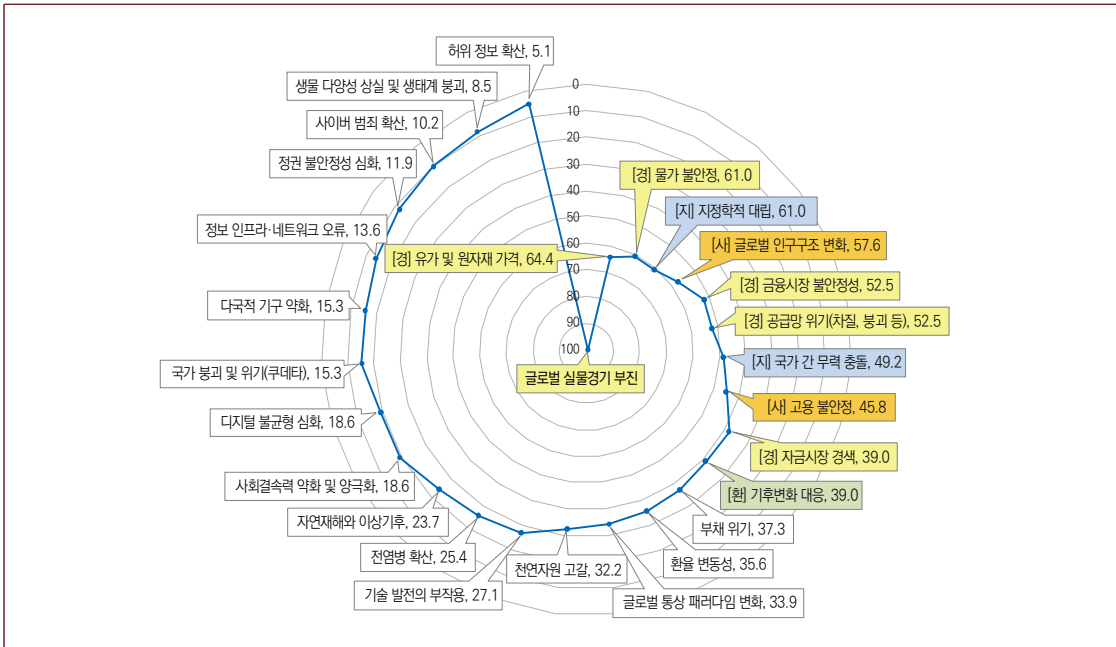
대한 부정적 파급력이 크고, 이는 최근 글로벌 경제의 주요 이슈인 ‘유가 및 원자재 가격’, ‘물가 불안정’ 등과 더욱 밀접하게 연관된 데에 기인

〈그림 6〉 대외리스크 5대 부문의 중심 및 연관 리스크와 연관관계 지도



- 1) 큰 원은 5대 부문의 중심 리스크이며, 작은 원은 중심 리스크와 연관관계가 가장 큰 연관 리스크.
- 2) 실선은 리스크 간 연관관계이며, 굵은 실선은 연관관계가 상대적으로 가장 큰 것을 의미.
- 3) 수치는 조사 응답자들의 선택 횟수(백분율)로 수치가 클수록 연관관계가 큰 것을 의미.
- 4) 리스크 간 연관관계는 그림의 단순화를 위해 각 부문 연관 리스크의 1순위만을 표시.

〈그림 7〉 경제 부문의 중심 및 연관 리스크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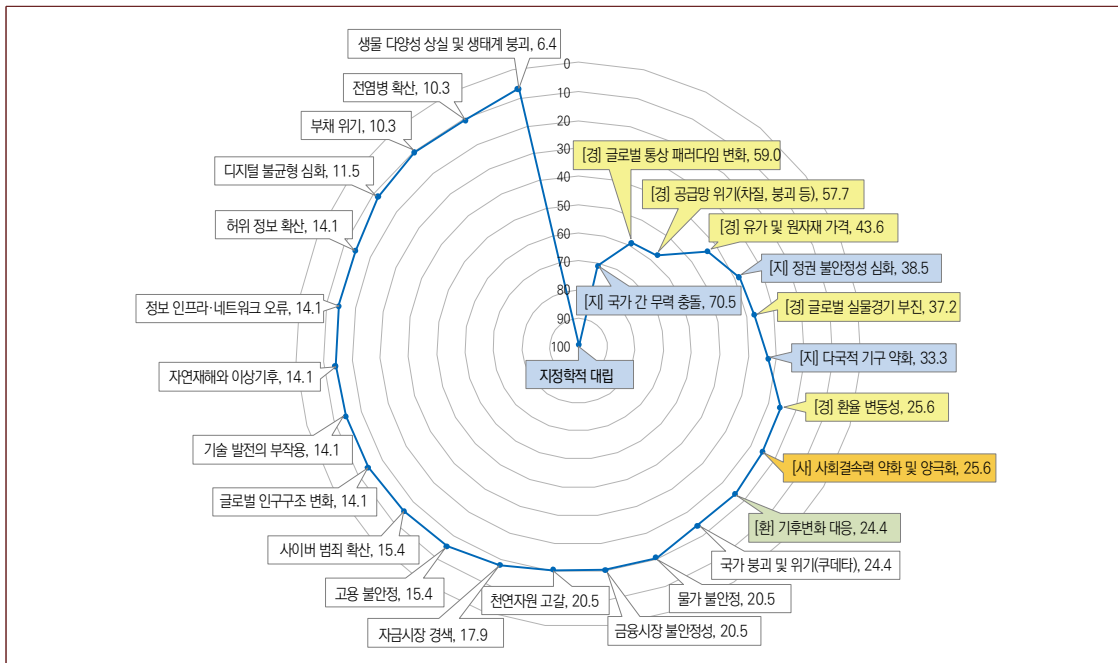
- 1) 연관 리스크는 해당 중심 리스크를 선택한 전문가 집단의 의견만을 반영하여 서열화.
- 2) 연관 리스크 수치(설문 응답을 중복 허용한 백분율)가 클수록 중심 리스크와 가깝고 연관관계가 큼.
- 3) 색 표시는 10순위까지의 연관 리스크이며, [] 안은 리스크 부문을 의미(예로, [경]은 경제 리스크).
- 4) 이하 4개 부문 모두 주 1), 2), 3)은 동일 사항.

- 동 리스크는 지정학적 대립, 글로벌 인구구조 변화, 기후변화 대응 등 타 부문 중심 리스크들과의 연계성이 큰데, 이들도 본질적으로는 경제적인 속성을 내포
- 대외 리스크 전체 시스템 내에서 회복 탄력성 또는 불안정성을 판단하는 데 경제 부문 리스크와의 연관관계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

■ 지정학 부문의 중심 리스크(지정학적 대립)와 연관 구조

- 한국 경제에서 ‘지정학적 대립’은 구조적으로 가장 중요한 리스크³⁾로, 이는 ‘국가 간 무력 충돌’ 리스크와 가장 큰 연관관계를 형성
 - 최근의 정세를 보더라도 미-중 갈등, 한·미·일·북·중·러 대립 확대 속에 러-우, 이스라엘-하마스 전쟁이 더해져 경제, 기술, 사회, 환경 등 전방위적으로 영향
 - ‘지정학적 대립’은 항시 한국 경제에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음을 고려하면, ‘국가 간 무력 충돌’ 리스크보다 체계적 위험성이 더 커 다중적이고 복합적인 위기로 작용
 -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정학 리스크는 다국적 기구를 통한 국제협력 메커니즘 등으로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어 여타 부문보다 리스크 대응이 상대적으로 수월 가능

〈그림 8〉 지정학 부문의 중심 및 연관 리스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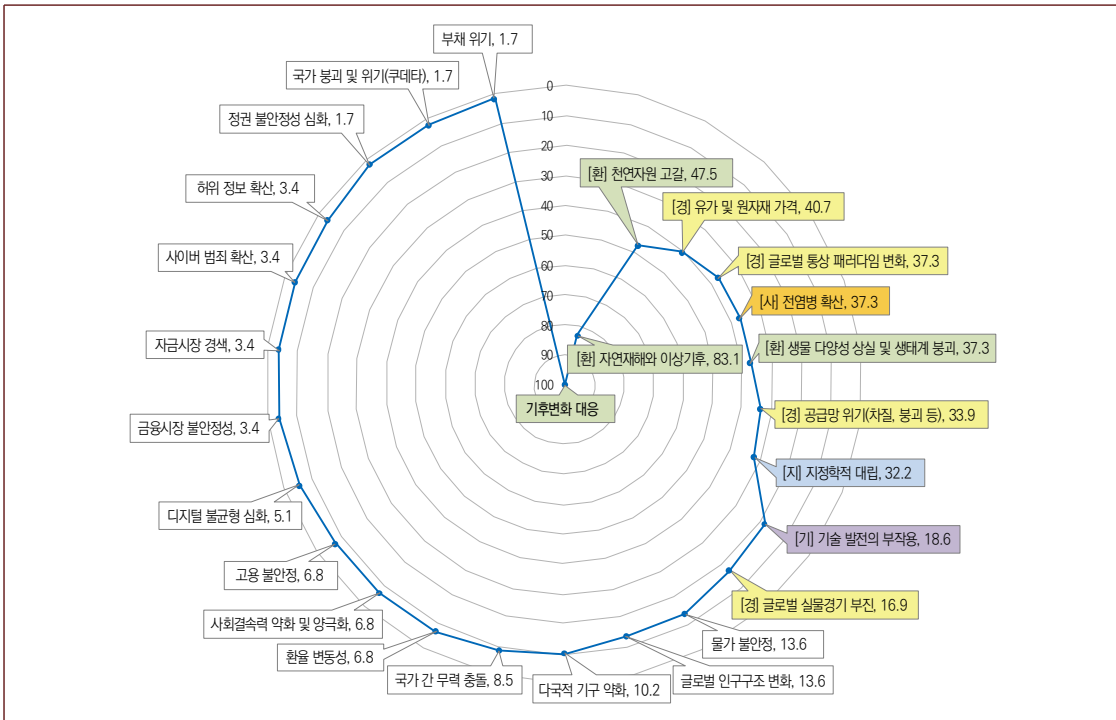


3) 지정학 리스크는 전 세계적 차원에서 정치, 외교 문제를 포괄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들의 완화 및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 등 중요도가 큰 리스크들을 다루고 있으며, 미-중 갈등, 러-우 및 이스라엘-하마스 전쟁 같은 국가 간 무력 충돌, 국가 붕괴 및 위기 등은 타 부문보다 인류가 자초하는 성격이 강함.

■ 환경 부문의 중심 리스크(기후변화 대응)와 연관 구조

- ‘기후변화 대응’은 구조적 중요성 외에 ‘자연재해나 이상기후’와 달리 인류 대응이 가능하다는 통제 가능성도 작용하여 환경 부문의 중심 리스크로 선정
 - 한국 경제가 탄소중립이라는 글로벌 책임에 동참하고 있는 데다, 국내 산업계도 이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점들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
 - 글로벌 실물경기 부진, 지정학적 대립, 기술발전의 부작용 등 타 부문의 중심 리스크와의 연관관계가 높아 전체 시스템에의 영향력이 매우 클 수 있음을 시사
 - 또한 ‘자연재해와 이상기후’가 가장 큰 연관 리스크로 조사되면서 ‘기후변화 대응’ 리스크가 향후 발생 가능성이나 부정적 파급력에 대한 통제가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⁴⁾

〈그림 9〉 환경 부문의 중심 및 연관 리스크



■ 사회 부문의 중심 리스크(글로벌 인구구조 변화)와 연관 구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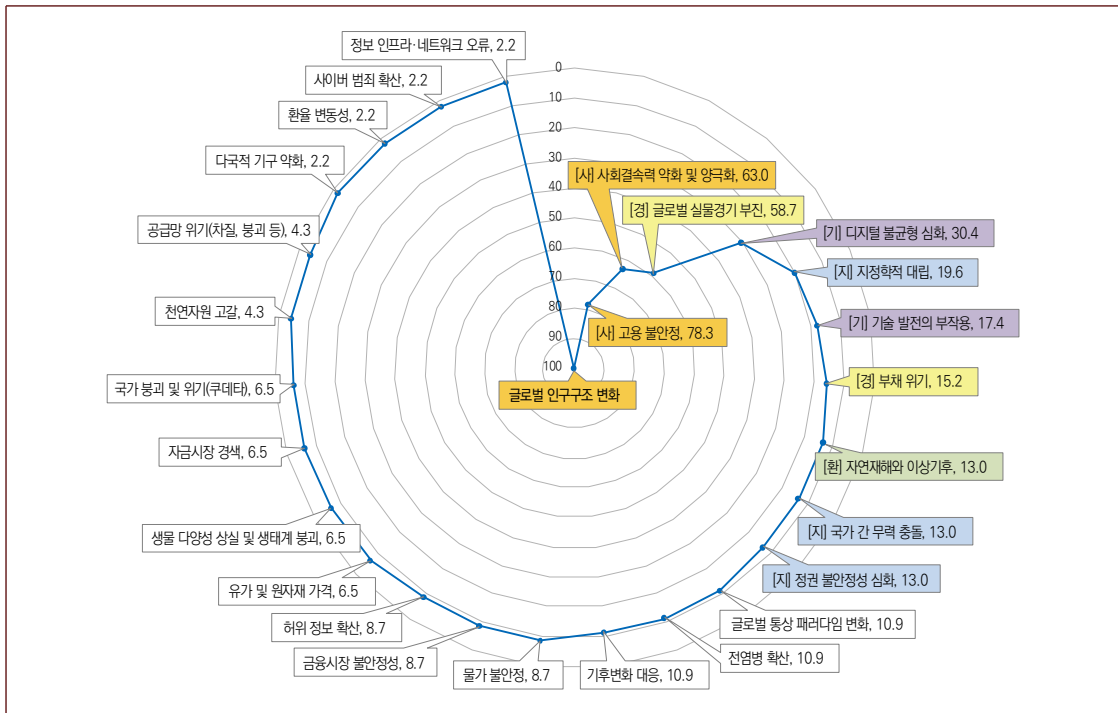
- 사회 부문의 중심 리스크인 ‘글로벌 인구구조 변화’는 현재 한국 경제가 처한 저출산·고령화의 심각성을 반영하는 등 구조적으로 가장 중요
 - 미래 발생 가능성과 부정적 파급력이 큰 ‘사회결속력 약화·양극화’, ‘사회 공동체 분열·계

4) 세계경제포럼(WEF) 조사에서도 상위 10개 리스크 중 환경 리스크가 6개를 차지하는 등 기후변화 완화 실패는 인류의 생존과 경제를 위협한다고 판단하고 있음.

층 불균형 심화’, ‘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대체’ 등보다도 심각하게 인식

- ‘고용 불안정’ 리스크와의 연관관계가 가장 크고, ‘글로벌 실물경기 부진’ 등 경제 부문과의 연관관계도 상대적으로 큰 편
- <그림 10>에서와 같이 사회, 경제, 기술, 지정학 등 타 부문 리스크들과의 연관관계가 상대적으로 다양해 리스크 발생 시 그 대응은 광범위해야 함을 시사

<그림 10> 사회 부문의 중심 및 연관 리스크



▣ 기술 부문의 중심 리스크(기술 발전의 부작용)와 연관 구조

- ‘기술 발전의 부작용’은 리스크 발생 가능성과 부정적 파급력 모두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됐지만, 구조적으로 가장 큰 체계성을 갖는다고 판단
- 일반적으로 타 부문 중심 리스크들이 발생 가능성과 부정적 파급력이 모두 크다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으로 자칫 인류가 간과할 수 있어 세심한 대응이 요구
 - 이는 디지털 전환이 대세인 현재, 국가 및 사회, 산업 측면에서 기회라는 장점과 리스크 요인이 모두 상존하기 때문으로 판단
 - 특히 기술⁵⁾과 사회⁶⁾ 부문의 리스크들과 연관관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등 특정 부문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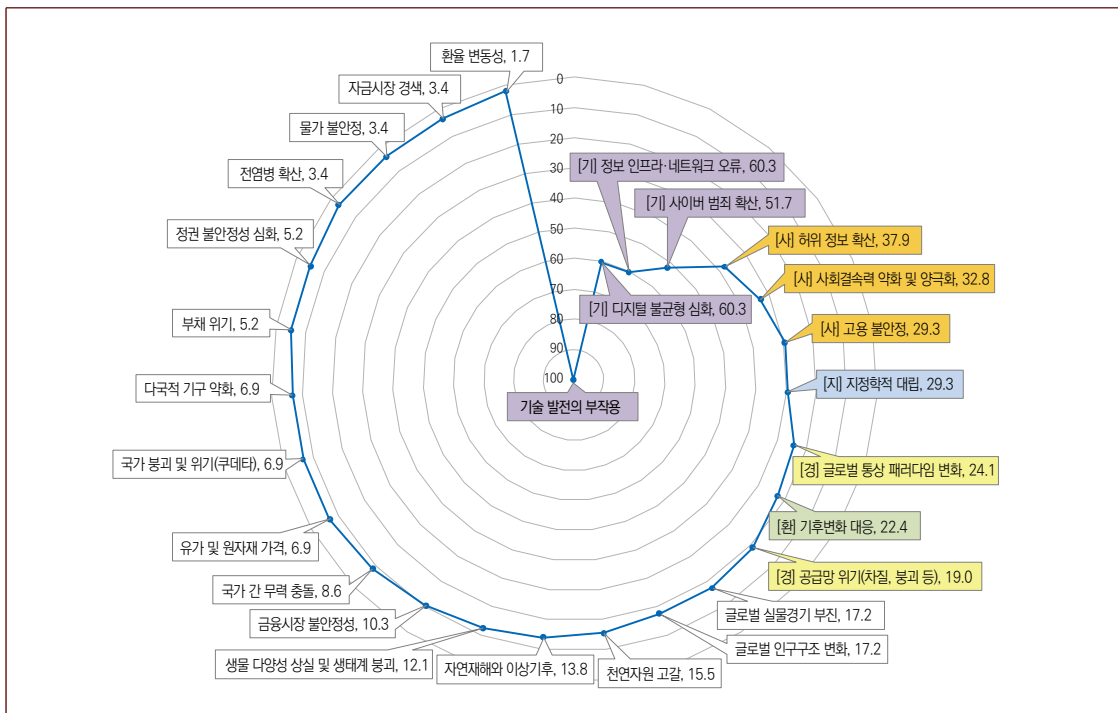
5) 디지털 불균형 심화, 정보 인프라·네트워크 오류, 사이버 범죄 확산 등.

6) 허위 정보 확산, 사회결속력 약화 및 양극화, 고용 불안정 등.

의 영향력이 막대하여 리스크 발생 시 이들 부문의 집중적 대응 필요

- 사회적으로는 기술에 대한 접근성과 디지털 역량이 디지털 격차 확대로 이어져 사회 결집력을 약화할 수 있음에 주목
- 기술 리스크는 국가의 디지털 전략과 디지털 사회의 성숙도에 좌우되고, 이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체계적인 리스크 예측과 대응이 요구

〈그림 11〉 기술 부문의 중심 및 연관 리스크



▣ 대외 리스크 관련 정책 대응 실태: 대부분 보통 수준(61~80%)⁷⁾ 이하로 미흡

- 부문별로는 경제, 환경, 사회 부문이 지정학, 기술 부문보다 상대적으로 더 미흡
 - 부채위기와 글로벌 실물경기 부진(경제), 천연자원 고갈과 자연재해·이상 기후(환경), 사회 결속력 약화·양극화와 글로벌 인구구조 변화(사회)에 대해서 크게 부족
 - 특히 이들 대부분은 각 부문 내에서 구조적으로 중요하고, 타 리스크에 대한 영향력이 큰 중심 리스크이기 때문에 철저하고 폭넓은 대응 방안 마련이 요구
- 경제 부문에서는 특히 글로벌 실물경기 흐름 예측 및 중장기적인 경제·산업 둔화에 대비한 경쟁력 확보 차원의 선제적인 투자 강화와 국제 질서 재편에의 대응 필요

7) 매우 미흡(0~40%) - 미흡(41~60%) - 보통(61~80%) - 충분(81~99%) - 매우 충분(100%)으로 평가.

〈표 1〉 대외 리스크 세부 요인들에 대한 정책 대응 수준

| | 대외 리스크 | 매우 미흡 (0~40%) | 미흡 (41~60%) | 보통 (61~80%) | 충분 (81~99%) | 매우 충분 (100%) | 100점 평균 | |
|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|
| 1 | 경제 리스크 | 글로벌 실물경기 부진 | 8.0 | 40.7 | 38.9 | 12.4 | 38.94 | |
| 2 | | 유가 및 원자재 가격 | 6.2 | 38.1 | 44.2 | 11.5 | 40.27 | |
| 3 | | 환율 변동성 | 3.5 | 32.7 | 43.4 | 19.5 | 0.9 | 45.35 |
| 4 | | 물가 불안정 | 4.4 | 42.5 | 36.3 | 15.0 | 1.8 | 41.81 |
| 5 | | 자금시장 경색 | 8.0 | 30.1 | 41.6 | 18.6 | 1.8 | 44.03 |
| 6 | | 금융시장 불안정성 | 7.1 | 34.5 | 41.6 | 15.0 | 1.8 | 42.48 |
| 7 | | 부채 위기 | 15.9 | 38.1 | 37.2 | 8.0 | 0.9 | 34.96 |
| 8 | | 글로벌 통상 패러다임 변화 | 7.1 | 40.7 | 38.9 | 11.5 | 1.8 | 40.04 |
| 9 | | 공급망 위기(차질, 붕괴 등) | 8.8 | 41.6 | 32.7 | 14.2 | 2.7 | 40.04 |
| 10 | 지정학 리스크 | 지정학적 대립 | 13.3 | 34.5 | 38.1 | 12.4 | 1.8 | 38.72 |
| 11 | | 국가 간 무력 충돌 | 6.2 | 32.7 | 42.5 | 18.6 | | 43.36 |
| 12 | | 정권 불안정성 심화 | 9.7 | 32.7 | 37.2 | 18.6 | 1.8 | 42.48 |
| 13 | | 국가 붕괴 및 위기(쿠데타) | 2.7 | 18.6 | 40.7 | 30.1 | 8.0 | 55.53 |
| 14 | 다국적 기구 약화 | 3.5 | 17.7 | 57.5 | 19.5 | 1.8 | 49.56 | |
| 15 | 환경 리스크 | 기후변화 대응 | 11.5 | 38.1 | 31.9 | 15.9 | 2.7 | 40.04 |
| 16 | | 자연재해와 이상기후 | 14.2 | 38.1 | 33.6 | 12.4 | 1.8 | 37.39 |
| 17 | | 생물 다양성 상실 및 생태계 붕괴 | 13.3 | 34.5 | 39.8 | 8.8 | 3.5 | 38.72 |
| 18 | 천연자원 고갈 | 13.3 | 47.8 | 31.9 | 5.3 | 1.8 | 33.63 | |
| 19 | 사회 리스크 | 글로벌 인구구조 변화 | 23.0 | 44.2 | 28.3 | 4.4 | | 28.54 |
| 20 | | 고용 불안정 | 9.7 | 50.4 | 35.4 | 4.4 | | 33.63 |
| 21 | | 사회결속력 약화 및 양극화 | 22.1 | 50.4 | 24.8 | 1.8 | 0.9 | 27.21 |
| 22 | | 전염병 확산 | 5.3 | 16.8 | 36.3 | 38.9 | 2.7 | 54.2 |
| 23 | | 허위 정보 확산 | 8.0 | 37.2 | 41.6 | 13.3 | | 40.04 |
| 24 | 기술 리스크 | 기술 발전의 부작용 | 5.3 | 25.7 | 51.3 | 15.0 | 2.7 | 46.02 |
| 25 | | 정보 인프라·네트워크 오류 | 2.7 | 21.2 | 47.8 | 26.5 | 1.8 | 50.88 |
| 26 | | 디지털 불균형 심화 | 8.0 | 28.3 | 46.9 | 15.0 | 1.8 | 43.58 |
| 27 | | 사이버 범죄 확산 | 11.5 | 32.7 | 35.4 | 19.5 | 0.9 | 41.37 |

주: 표에서 색이 짙을수록 설문응답률(빈도)이 높은 부분임.

- 최근 고금리에 따른 투자지출 부담이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자금조달 활성화 대책 마련 등 각별한 노력이 요구
- 원자재 수급에 애로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원자재 생산 국가와의 FTA 체결 확대로 원가절감과 가격안정화를 유도하고 대체자원 개발에서 정부 지원 확대 필요
- 환경 부문에서는 유럽 등 선진국의 환경 규제 및 탄소국경세 등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위한 기업 간 공동 대응 체계 구축 등을 점검하고 고도화할 필요
- 각국의 환경 관련 정책은 자국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하기에 보호주의 정책 리스크가 고조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저탄소 산업구조 전환 등 산업별 탈탄소화 및 친환경 투자에 대한 기존 계획 이행 지속 점검

- 사회 리스크는 특히, 상대적으로 정책 대응 정도는 낮게 평가되고 있으나 중요성은 큰 글로벌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영향의 최근 흐름 파악과 적기 대응에 더욱 집중할 필요
 - 2024년 저출산 5대 핵심과제(돌봄·교육, 일·육아 병행 지원, 주거서비스, 양육비용 부담 경감, 임신·출산 지원) 등 저출산·고령화에 대비한 출산 장려 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 제고 외에도 1인 가구 급증(2022년 기준 34.5%)에 대비한 맞춤형 주거·복지망도 시급
 - 1인 가구 급증은 고령화, 집값 상승과 안정적 일자리 감소에 따른 비혼 증가 등에 기인하며, 대책 마련이 미비할 시 또 다른 사회결속력 약화 및 양극화 문제로 대두·심화할 가능성
- 지정학 리스크에 대해서는 국가 간 패권 경쟁에서 소외되지 않고 무역분쟁에 따른 공급망 이슈 및 수출 규제 등에서 정부 협상력 제고와 우방과의 네트워크 강화가 필요
 - 국가별, 지역별 편중에 따른 리스크 완화 차원에서 개별 기업별로 생산거점 확보를 고려하고, 정책 당국과 긴밀한 커뮤니케이션 강화로 민·관 협력 실시간 대응
- 글로벌 공동 대응 영역인 환경과 지정학 리스크는 대외 리스크 대비를 위해 국가의 개별 대응 외에도 정보 교환과 협업 등 국가 간 다자협력 강화가 필요

▣ 리스크 대응을 위해 다양한 정보 수집 노력과 다각적인 대응책 마련 필요

- 대외 리스크가 국내 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현시점에서 가장 크게 우려되는 부문을 중심으로 사전 모니터링 강화 및 대응 체계 마련에 나서는 한편, 개별 리스크의 현실화 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 중심으로 정책과 지원을 집중할 필요
 - 현시점에서는 경제 리스크 위험도가 가장 크게 인식되고 있어 경제 리스크와 관련된 다양한 리스크 요인들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,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 나가는 데 주력
 - 업종별 최대 리스크 요인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산업 간 차별적 특징에 기인하는 것으로 개별 리스크 부각 시 가장 크게 충격을 받는 산업 중심의 맞춤형 대응 전략을 구사
- 한편 리스크 영향과 대응책 등이 주로 경제 부문에 편중된 데 따른 거시적 위험에 대한 과소 평가를 경계하고, 여타 부문까지 고려하여 관찰 대상 폭을 넓힐 필요
 - 최근에는 지정학, 환경, 사회, 기술 부문의 리스크 영향력이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, 경제 부문 리스크와도 높은 연관관계를 형성하여 궁극적으로 경제적 속성을 보이는 영향
 - 즉, 글로벌 시스템이 강화되면서 하나의 개별 리스크가 타 리스크에 대한 영향력이 확대되고, 리스크 간 연계성도 커지면서 동시다발적 복합위기 초래 가능
 - 특히, 부문별 중심 리스크는 해당 부문 및 타 부문에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는 점에서 리스크 관리의 우선순위에 두고, 그 중심 리스크와 높은 연관관계를 보이는 리스크들은 여러 부문에 걸쳐 있기에 리스크 관리를 폭넓게 해나가야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

- 궁극적으로 하나의 개별 리스크가 가지는 국지적인 영향에만 집중·대응하지 않고, 리스크 간 연계성 및 우선순위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분석하여 대응할 필요
 - 이를 통해 특정 영역을 넘어 공동 대응이 필요한 영역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대응책을 수립하는 노력이 필요
 - 이는 대외 리스크가 한국 경제 및 산업에만 영향을 미치더라도 효과적인 대응은 리스크에 따라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
 - 가령, 기후변화 대응, 지정학적 위험 등은 리스크 간 연계성도 크고 동시에 정보 교환과 협업 등 국내를 넘어 글로벌 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
- 대외 리스크가 예상치 못한 부문의 리스크까지 포함하는 등 여러 부문에 걸쳐 연계성을 가지고 발현된다는 것은 리스크 대응에서도 관련 부문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므로, 시나리오를 다각도로 설정하고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데이터 분석 등 고도화된 방안을 강구

이원복 동향분석실 | 부연구위원 | wblee@kiet.re.kr | 044-287-3126

민성환 동향분석실 | 선임연구위원 | shmin@kiet.re.kr | 044-287-3127

〈부록〉 대외 리스크 유형화⁸⁾ 및 설문조사 응답자 개요

- 본 설문조사는 2023년 8월 7일~9월 7일에 수행하여 산업 전문가 113명이 최종 응답하였고, 이 중 복수의 전문 분야를 담당할 경우 최대 3개 산업까지 응답을 허용
 - 한국경제 전반에 대한 설문은 113개, 제조업에 대한 설문은 190개의 응답 결과로 분석

〈부표 1〉 대외 리스크 분류 및 정의

| 대외 리스크 분류/정의(27) | | 내용/이슈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|
| 경제 리스크 (9) | 글로벌 실물경기 부진 | 글로벌 저성장이 장기간 지속 |
| | 유가 및 원자재 가격 | 수입품 가격 상승으로 국제수지와 물가에 악영향 |
| | 환율 변동성 | 환율의 급격한 변화로 경기 증폭 효과 발생 및 기업에의 영향, 외환위기 등의 발생 가능성 |
| | 물가 불안정 | 인플레이션/디플레이션 심화 및 중앙은행들의 상품/서비스 물가 통제 실패 |
| | 자금시장 경색 | 고금리 장기화 및 신용경색 위험 |
| | 금융시장 불안정성 | 주요국 내 부동산, 주식 등에서 과대 계상·버블 형성 및 은행 고객들의 대규모 예금 인출(자산버블, 뱅크런 등) |
| | 부채 위기 | 대량 파산, 채무불이행 등 가계, 국가의 부채 위기 |
| | 글로벌 통상 패러다임 변화 | 다자간 협력 체제에서 무역장벽 강화 등 보호주의 및 자국 우선주의 등으로의 전환 |
| | 공급망 위기(차질, 봉괴 등) | 중요 상품/서비스 수급에서의 갑작스러운 충격으로 경제, 금융시장 등에 영향 |
| 지정학 리스크 (5) | 지정학적 대립 | 지정학적 이점 및 영향력 행사를 위한 상품, 기술, 지식 제한 등 국가 간 경제적 대립 |
| | 국가 간 무력 충돌 | 국가 간 양자/다자간 물리적 및 군사적 충돌 가능성 |
| | 정권 불안정성 심화 | 주요국 정권 변화에 따른 정부 정책 불안정성 확대 |
| | 국가 붕괴 및 위기(쿠데타) | 내전, 군사 쿠데타 등 지역·글로벌 불안정 |
| | 다국적 기구 약화 | 지정학적 분열로 인한 국제 협력 메커니즘 약화/외해 |
| 환경 리스크 (4) | 기후변화 대응 | 탄소중립, 탈탄소 등 기후변화 완화 조치 및 실시 실패 |
| | 자연재해와 이상기후 | 홍수, 가뭄, 태풍, 폭염, 지진, 천체 충돌 등 극단적 기상이변으로 인명, 재산, 인프라, 환경 피해 |
| | 생물 다양성 상실 및 생태계 붕괴 | 산업 및 인류 생존 자원의 고갈을 초래하는 심각한 환경 파괴 |
| | 천연자원 고갈 | 과도한 자원개발 및 관리에 따른 주요 원자재 및 천연자원 공급 부족 발생 |
| 사회 리스크 (5) | 글로벌 인구구조 변화 | 출산율 저하 및 고령화 인구 증가, 성비 불균형 등으로 사회·경제적 취약 구조 발생 |
| | 고용 불안정 | 노동 수급 불일치, 근로자 권리 침해, 실업 인구 및 불안전 고용 증가,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대체 등 |
| | 사회결속력 약화 및 양극화 | 사회 공동체 분열 및 안정성 저하로 인한 불안 심리 확산, 계층 간 불균형 구조 심화 |
| | 전염병 확산 | 바이러스 확산 등 예기치 못한 전염병 발생에 따른 인명 손실과 경제적 혼란 |
| | 허위 정보 확산 | 미디어 네트워크를 통한 무분별한 허위 정보 유포로 사회적 분란 야기 |
| 기술 리스크 (4) | 기술 발전의 부작용 | AI, 생명공학, 로봇 등 최첨단 기술 발전에 따른 부정적 영향(딥페이크, 금융사기 등) |
| | 정보 인프라·네트워크 오류 | 주요 정보 인프라와 네트워크 시스템 장애 등으로 인한 사이버 공격 및 물리적 손상 등 |
| | 디지털 불균형 심화 | 디지털 기술 또는 관련 제품·서비스 사용 정도에 따른 국가 간 내지 국가 내 불균형 심화 |
| | 사이버 범죄 확산 | 사생활 침해, 데이터 사기·유출, 악성 프로그램 유포·확산 등에 따른 불안 |


8) 본고에서는 케임브리지 리스크 연구센터(Cambridge Centre for Risk Studies)와 세계경제포럼(WEF)의 대외 리스크 분류법을 참고함. 전자는 6개 기본 클래스(금융·지정학·사회·환경·기술·거버넌스)에 37개 위험군/각 위험군별 2~11개 요인(총 175개)의 위험요인을 제시하며, 후자는 5개 부문(경제·환경·지정학·사회·기술) 32개의 위험요인(2023년 기준)을 제시(리스크 개수는 매년 상이)하여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진행(본고는 전자의 분류체계와 주로 후자의 분류체계 및 결과보고서 등을 참고).

〈부표 2〉 대외 리스크 관련 전문가 설문조사 개요

| 조사표 체계 | | 내용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파악 대상 | 한국 경제 | 경제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해당하는 폭넓은 개념 |
| | 한국 산업 | 자동차, 바이오·헬스, 기계, 가전, 섬유, 화학, 디스플레이, 조선, 철강, 반도체, 휴대폰 등 11개 |
| 기준 | 단기(3년 내) | 현재 위협하고 있는 당장의 위기 |
| 유형화 (5대 부문, 27개 리스크) | 경제 리스크(9) | 글로벌 실물경기 부진 등 9개 |
| | 지정학 리스크(5) | 지정학적 대립 등 5개 |
| | 환경 리스크(4) | 기후변화 대응 등 4개 |
| | 사회 리스크(5) | 글로벌 인구구조 변화 등 5개 |
| | 기술 리스크(4) | 기술 발전의 부작용 등 4개 |
| 문항 | 발생 가능성 및 부정적 파급효과 | · 5개 대외 리스크 부문 및 세부 리스크 대상 · 5점 척도 조사/평가 · 발생 가능성(X축), 파급효과(Y축)의 지형도 작성 |
| | 중심 리스크 (Centres of Gravity) | · 직관적으로 판단 시 각 부문에서 중심이 되고 있는 리스크, 즉 시스템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리스크 · 해당 부문 리스크와 관련성이 가장 높고 구조적 중요성도 가장 크고 타 리스크에 대한 영향력과 중요성이 가장 큰 리스크 |
| | 연관 리스크 | 중심 리스크와 가장 밀접하고 중요한 연관성을 가지는 리스크 |
| | 위험에 대한 대응 | · 중심 및 연관 리스크를 파악하는 이유는 부문 내에서도 가장 영향력이 있는 리스크가 있기 마련이고, 부문 내 중심 리스크는 다른 부문의 리스크들과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임(상호 연관관계 파악) · 설문조사에서 빈도수에 따라 중심 리스크가 선정되고, 역시 빈도수에 따라 연관 리스크들의 연관도(서열) 파악 · 개별 리스크에 대한 대응 방안의 수준 파악 |

〈부표 3〉 설문조사 응답자 개요

| | | 응답 수 | 비중(%) |
|--------|--------|------|-------|
| 전체 | | 190 | 100.0 |
| ICT 부문 | 반도체 | 25 | 22.1 |
| | 디스플레이 | 11 | 9.7 |
| | 휴대폰 | 22 | 19.5 |
| | 가전 | 10 | 8.8 |
| 기계 부문 | 자동차 | 27 | 23.9 |
| | 조선 | 15 | 13.3 |
| | 기계 | 20 | 17.7 |
| 소재·신산업 | 화학 | 16 | 14.2 |
| | 철강 | 14 | 12.4 |
| | 섬유 | 10 | 8.8 |
| | 바이오·헬스 | 20 | 17.7 |


 발행처 산업연구원 | 발행인 주현 | 편집인 김인철
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
 Tel. 044-287-3114 Fax. 044-287-3333 홈페이지 www.kiet.re.kr

이 자료는 산업연구원 홈페이지(www.kiet.re.kr)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.